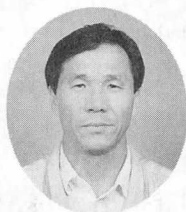




**한** 국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축산물 자유화를 눈앞에 두고 농수산부에서는 국민건강 안전과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육류에 항생제 잔류물 없애기와 각종 세균수 줄이기에 앞다투어 노력하고 실행할 방침을 제시해 놓았고 그렇게 되도록 전국 양축가와 도축장 및 육가공육류 해체작업장이며 유통업에 종사한 도소매상인들에 최고의 기술과 고노에 짜낸 결실을 기대하고 있던차 모든 과제의 원제공인 가축질병박멸대책을 위해 여러 학계교수, 수의학전문, 생산자단체, 축산업에 일생을 맡겨 분투해온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축질병박멸대책안을 만들어 수차례의 협의끝에 그런대로의 최선과 최대의 안이 나와 곧 발표단계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다. 한편은 걱정도 있다. 시행하다보면 다시 손질해야할 점도 돌출될 것이며 전국 양축가들이 값비싼 사료로 가축에게 100%의 결실이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좋은 결실을 위한 노력이니 좋은 열매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 정부의 돼지 전염병 박멸대책에 바란다

—양돈농가 입장—



박동래  
(신애원 농장 대표)

## ① 돈콜레라 질병박멸에 대하여

돼지콜레라는 옛부터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 기정사실이며 양돈업에 종사한 사람이면 기본상식으로 되어 있다.

백신을 틀림없이 접종 잘한 농가는 피해가 없었다. 콜레라 예방접종을 양축가 여러분들이 철저히 함으로써 콜레라가 하루빨리 박멸되어 콜레라 피해가 근절되는 날이 올 것이다.

## ② 오제스키 질병박멸에 대하여

오제스키병이 다시 고개를 들어 전국 고을고을 돼지농장에 만연했다고 하는데 이는 종돈장에서 오제스키병이 들었던 돼지군들을 바로바로 도태 살처분 해야할텐데 살처분을 회피하고 파렴치한 몇몇 대규모

종돈장에서 오제스키병이 감염된 종돈을 속여 분양, 유통시킨 피해가 확산되어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면 당국은 무얼했을까? 동정에 끌렸던가 아니면 몰랐던가,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다.

이러한 문제는 요즈음 인류가 섹스를 즐기므로 점점 번져 국제사회에서 AIDS가 문제됨과 마찬가지로 AIDS 걸린 젊은 여자를 기용하여 매춘업을 종사한 것과 무엇이 다르랴. 그 행위에 대한 분노는 천인공노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법률상 오제스키병으로 문제 있는 가축들은 가축위생연구소에 신고하여 즉시 도태 살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지켜졌으면 이나라 양축가들이 오제스키병을 염려 할 필요가 없었을 것 아닌가? 왜 정부관계 부처는 단호히 살처분조치를 못하고 전국 양축가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도록 방치했느냐가 문제다. 오제스키 백신을 접종해서 피해를 감소하자고 하는 말은 분명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옛 속담에 호미로 막을 독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라는 이야기는 분명 오늘 이런 일들을 가르켜 한 말로 들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오제스키 질병에 감염된 가축을 철저히 색출하여 살처분하고 적절한 보상비를 준다면 전국에서 문제되고 있다는 오제스키병은 깨끗하게 없어질 것을 필자는 주장하고 앞으로도 계속 주장할 것이다.

앞으로 양축가에게 질병문제 뿐 아니라 많은 어려움이 일어나 우리에게 큰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 ③ 양축농가의 난제에 대하여

몇 년전 우루과이 협상때에 국제곡물시세가 인상될 것을 생각조차 해본 일이 있었던가. 미국에서는 언제나 무제한으로 곡물이 쏟아져 항상 싼 값에 수입해서 안심하고 양축할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1994년 대비 95년 96년 사이 사료값 인상은 '95년에 14%, '96년에 15%나 올랐고 앞으로도 다시 오를 요인이 더 남아있다 한다.

66

수입자유화를 앞두고

현 정부는 몇년전부터 다급히 양축가들에게 시설개축 자동화 시설자금과 축산단지 전업농가육성자금을 축산진흥 기금에서 연 8% 짜리 대출을 해주었다. 대출할 때는 담보대출이고 정부는 대출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런 추세로 가면 회수할 수 있다고 보는가? 시설물은 7-8년 후면 다시 보완개설 해야한다. 양축가들은 도둑놈으로 물리고 말 것이다.

99

그에 대비하여 정부는 무얼 하고 있는가? 국내 소비 축산물전량을 수입해 국민들에게 싸게 공급할 계획인가? 그렇게 되었을 때 축산물값이 또 오른다면 그뎨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없는 정치는 이제 끝내고 새로운 정치로 21세기를 맞는 농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많이 늦었지만, 늦었다고 손을 들고 말겠다는 건가? 축산인들은 청와대 전 제1부속실장으로 근무했던 장학로씨같이 떡값을 줏다준 사람이 없다.

장학로씨가 사서 먹는 떡은 순금가루로 만들어 먹는 떡인가? 21억원의 뇌물을 떡값으로 인정하겠다는 검찰의 발표내용이다. 그곳에는 그렇게 푸짐하고 풍부한 떡값이 줄곧 왔다갔다하고 한 사람 한끼의 식사값이 30만원짜리 였다고 하는데 우리 양축가에게는 정부가 너무 인색했다.

양축가들의 수입자유화를 앞두고 국제경쟁력을 크게 저해시키는 축산물생산 원자재인 사료에 영세율 적용을 전면실시하고 미국이나 외국에서 사료원료곡물에 관세부가세를 면세하여 이젠 우리 양축가들을 참으로 진정 아껴 보호해 주기 바란다.

사료에서 부가세를 못받는 대신 축산물 수입이 크게 늘어 관세받은 돈이 크게 늘고있지 않았는가. 그걸로 대체하면 될 것이며 공업을 살리기위해 한 일이면 농업도 공업만큼 크게 생각해 수평된 공동체의 삶이 되도록 하기 바란다.

수입자유화를 앞두고 현 정부는 몇년전부터 다급히 양축가들에게 시설개축 자동화 시설자금과 축산단지 전업농가육성자금을 축산진흥 기금에서 연 8% 짜리 대출을 해주었다. 대출할 때는 담보대출이고 정

부는 대출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런 추세로 가면 회수할 수 있다고 보는가? 시설물은 7-8년 후면 다시 보완개설 해야한다. 양축가들은 도둑놈으로 몰리고 말 것이다.

필자는 전업농가 자금을 몇억 대출받아 양돈업을 하고있는 사람을 만나본 일이었다. 처음 시작할 때 적극 말렸으나 그 사람은 끝까지 내말을 듣지 않고 시작하더니 큰 걱정이 앞서 실음에 빠질 지경이라고 한다.

수입고기와 국내고기의 가격 차이가 시설투자비용의 이자 몇 % 차이만 난다는 말인가? 축산업을 71년부터 종사해왔던 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 축산업은 굴곡이 심했으나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어렵지만 그런 대로 좀 나아지겠지'의 기대를 갖고 양축업을 종사했다. 앞으로 국제화시대를 맞아 수입자

유화를 막을 길이 없어서 축산물가격이 양축인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수익이 없게 될 것은 기정 사실이다.

일생을 축산업이 천직으로 알고 허리가 아파도 참고 가족분노를 더럽다랏고 뒤집어 쓰며 열심히 일해왔는데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든 탑이 하루 아침에 무너질 것을 생각하니 앞이 어둡기만 하다. 당분간 콜레라, 오제스키병을 크게 다루는 그것 뿐 아니라 외국에서 종돈이 많이 수입되어 오기 때문에 그와함께 질병이 따라와 새로운 괴이한 병들이 너무 많이 만연된 상태다. 그 갖가지 질병을 막으려면 모든 돼지들은 주기적으로 언제나 여러가지 예방접종주사를 맞아야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드는 실정이다.

점차 정부는 질병 백신제조 회사를 단품목 제조 단일화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콜레라는 콜레라 백신만 한 회사가 만들어 공급하고 각종 질병 백신들을 한품목 생산 제조하여 보급한다면 경영수지가 맞을 것 아닌가? 양축가들은 콜레라백신값이 96년들어 100% 올랐다는 것 때문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모든 백신을 관급, 공급으로 했으면 좋겠다.

WTO 문제로 직간접 생산지원을 금하도록 되었다면 질병방역비로 정부에서 양축가들에게 도움을 주어 각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면 가축들이 잘자라 항생제를 쓸 필요가 없기에 고급육 향상이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항균, 항생제가 육류에서 검출될 수 없으니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다. 질병박멸대책안을 제도화해서 기구를 설치 운용하기로 했으면 그에따른 좋은 결과가 필히 주어지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와 축산단체와 양축가개개인의 분투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환경오염 방제를 위해서도 좀 더 적극 노력함으로 양질의 고기 생산과 좋은 환경, 건전하고 부강한 나라 이룩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전국 양축가 여러분! 우리 합심하여 단결합시다.

